

위안부 누드와 나치 캠프 그리고 강간 환상의 섹슈얼리티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가 비난받는 이유

서 동 진 · 문화평론가

위안부 누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이승연의 위안부 누드로 사회 전체가 북새통이다. 가관인 것은 스포츠신문들이다. 위안부 누드를 향해 도덕적 분노를 표현하는 척하지만, 다들 알고 있듯이 그들은 위안부 누드의 외설스러움을 증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끽한다. 그들은 아예 무슨 애국주의적 순결의 십자군이라도 된 양 위안부 누드를 탄핵하고 비난한다. 안티 - 이승연 사이트에 쏟아지는 분노와 적의는 살벌하리 만치 일치단결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전에 없는 만장일치의 저주와 비난을 지켜보며 찢찢한 마음을 떨치기 어렵다. 아마 위안부 누드를 옹호하려는 이는 금지산자가 될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볼 보듯 뻔한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위안부 누드를 둘러싼 논쟁 아닌 논쟁에 끼어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안부 누드를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 반론은커녕 조금 망설이는 태도조차 불경이자 반역인양 단죄하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빈틈없이 일치된 의견은 마치 사태가 단순하고 자명한 것인양 보이도록 한다. 물론 이런 이의제기를 두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지식인 특유의詹詹하는 태도라고 빈정거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폄을 잡기에는 이번의 이승연 누드를 둘러싼 소동은 아주 우습고 치사하며 잔인하고 위악하다. 우리는 위안부 누드를 둘러싼 광란적인 비난 속에 위안부 여성에 관한 조롱과 모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사악한 이데올로기가 관류한다는 믿음을 떨칠 수 없다.

식민의 역사를 다시 기억해보자는 진지한 발로에서 위안부

누드를 기획했다는 제작사 측의 주장은 참으로 가소롭고 기상천외한 설레발이다. 이런 졸렬한 변명을 할 생각이었으면 그냥 함구하고 있는 게 나았을 것이다. 만약 진심으로 그런 엄청난 의도로 이승연 누드를 만들었다면, 시쳇말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세간의 비난은 백 번 옳다. 그렇지만 위안부 누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의 태도 역시 제작한 자들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위안부 누드를 만든 이들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을지 모를 은밀한 성적인 환상을 순진하게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이용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오해했거나 무식했던 점은 여기에 있다. 그들은 그 은밀한 환상이 발설되어서는 안되는, 문자 그대로 쓰여지지 않은 환상으로서만 유지되어야 한다는, “불가시적인 금지의 규칙”을 위반했던 것이다. 그들은 “다들 즐기고 있다”는 순진한 사실만을 알고 있었지 “아무도 즐기지 않은 척 즐기고 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위안부 누드를 만든 이들은 다들 정신대 여성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즐기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실제로 다들 그 환상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것을 “어제 나는 친구 누나를 따먹었다”는 식의 흔해빠지고 저질스러우며 음란한 낙서 따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루고 말았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옆집에 사는 친구 누나를 따먹었다는 식의 화장실 낙서와 위안부 여성들의 성적인 재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둘 모두 은밀한 강간 환상의 틀을 통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위안부 여성들이 식민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위안부 여성들의 체험을 집요하게 성으로부터 떼어놓으려 애써왔다. 우리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체험을 상징화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 받은 유일한 언어는 ‘식민지 백성’이다. 이는 그녀들이 겪은 고통의 핵심적인 원인이 강간이라는 사실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에 강간을 당한 여성들의 체험을 인종적 폭력과 식민적인 지배의 결과로 환원하려는 (보스니아나 르완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남성의 역사적 범정 논

위안부 누드는 위안부 여성의 체험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고 있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 조국”을 능욕하느냐고 위안부 누드를 비난할 때 그 주장은 식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식민의 역사 안에 놓인 위안부 여성의 체험에 숨어있는 성을 떼어내고 아울러 자신의 물역사적인 강간 환상을 유지하려는 몸짓에 가깝다. 위안부 누드는 식민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환상을 이용한 싸구려 포르노일 뿐이다. 그것은 식민적 역사와 전사의 강간을 자신의 환상의 무대 안의 간단한 장치로 소비하려 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안부 누드의 평범하고 순진한 의도가 격렬한 거부에 좌절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리이다. 설령 그녀들이 겪은 강간의 체험을 마지못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강간당한 여성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 여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힘없는 남성들의 무력과 자괴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 오랜 세월 숨죽여 살다가 마침내 ‘커밍아웃’을 하였을 때 그녀들을 그토록 침묵하게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그녀들이 전시에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다.

변영주 감독의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 연작이 보여주듯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은 ‘식민지 백성’의 고통으로 축소할 수 없는 “여성”의 고통이었다. 그녀들의 고통은 강간당한 여성의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처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간 남자”와 살을 섞은 여자였기에, 성병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강간당한 여자였기 때문에 정신대 할머니들은 숨어살아야 했다. 물론 그녀들의 고통을 강간이라는 성의 폭력으로 고발하는 것과 식민주의적 폭력으로 고발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왜냐면 모든 역사는 또한 성을 조작하고 전용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안부 할머니들의 죽음을 제대로 애도하고 그녀의 고통을 정당하게 위안하는 방식은 그녀들의 성적인 체험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시골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한 젊은 여성이 위안부로 징발되어 성의 노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제국주의는 무엇이었을까. 위안부 여성들은 어딘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낯선 남성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성적인 모욕과 폭력을 겪은 여성들이다. 그렇지만 비겁하게도 우리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러한 체험을 언제나 부인해왔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자신의 성을 둘러싼 모욕과 분노는 함구하도록 강요하고 식민의 역사 안에서만 말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렇게 강간의 체험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종용된 채 그들은 식민주의의 피해자로서 자신을 재현해야만 했다.

위안부 누드와 나치캠프

위안부 누드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신대 할머니들을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국주의를 기억하는 남성 주체의

大衆文化

입장 안에 강간당한 여성의 자리는 없거나 부정된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이이거나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다. 그렇지만 민족의 역사가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강간당한 여성으로서의 체험을 소외시키고 식민지 백성으로 상징화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위안부 여성들의 강간의 체험을 완벽히 잇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억압된 채 긍정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위안부 누드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억압된 채 즐거지고 있던 남성적 환상이다. 위안부 누드는 위안부 여성(혹은 성의 희생물)을 강요당한 역사 속의 여성들에게 투입되어 있는 은밀한 성적인 환상을 그만 어이없이 누설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나치 캠프와 위안부 누드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나치 캠프란 나치의 강제수용소가 아니라 나치의 미학적 태도를 이용한 문화, 특히 사도마조히즘적인 포르노그래피를 가리킨다. 2차 대전 이후의 수많은 포르노그래피는 나치 강제수용소에서의 사도마조히즘적인 관능을 즐긴다.

스와티카 견장과 검은 가죽 부츠, 투박한 독일어 억양과 채찍은 이미 많은 포르노그래피의 미장센이 되었다. 이러한 형식적인 과장, 외적인 표면의 집착 때문에 이것은 나치 캠프라는 에로티카 혹은 포르노그래피의 장르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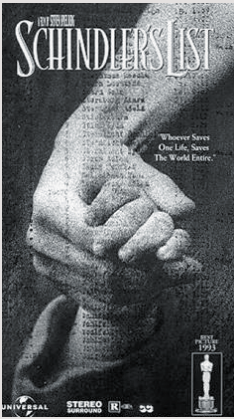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를 홀로코스트로 인해 죽어야 했던 유대인들의 처참한 고통을 이중적으로 모욕하는 범죄로 비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그런 나치 캠프를 숭배하거나 지지하는 이들이 많을 정도이다. 이를테면 마누엘 푸익의 『거미여인의 키스』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 소설에 등장하는 성전

환자의 환상은 나치캠프의 전형이다. 반정부 투쟁을 하다 투옥된 한 사회주의자는 성전환자가 즐기는 나치 장교와의 퇴폐적인 성의 환상을 견딜 수 없이 혐오하고 경멸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욕망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마침내 윤리적인 변신을 이룬다. 물론 이 때 그 사회주의자는 그 성전환자의 나치 장교를 향한 마조히즘적인 성적 환상을 수긍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그 성전환자가 꿈꾸는 환상의 표면에 기록된 티없이 역겨운 이야기의 뒤편에서 그의 욕망을 조직하고 있는 진실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치 캠프는 파시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외려 나치 캠프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구성하고 직조하는 자의 욕망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나치 캠프는 파시즘의 욕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파시즘을 가능케 했던 우리의 자발적인 욕망을 상연한다.

그러므로 나치즘이 등장한 이유는 전후 유럽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반동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치즘의 이해관계와 그것이 뿔어냈던 불가해한 매력 사이에는 넘지 못할 긴장이 있다. 나치즘의 여성혐오와 동성애혐오 그리고 외설스러운 성적인 향유 사이에는 불가분한 관계가 있다. 나치 캠프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위안부 누드를 비난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거꾸로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식민적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위안부 여성들을 계속 침묵시키도록 강요하는 폭력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위안부 누드를 어머니 조국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하는 것이야말로 위안부 여성들이 겪은 강간의 고통을 회피하는 교묘한 잔꾀일 뿐이다. 그녀들이 오랜 세월 침묵 속에 공식적인 식민 청산의 기억 속에 참여하지 못



일제시대 일본군이 운영했던 상해 위안소 입구.



〈쉰들러리스트〉 영화포스터

했던 이유는 바로 그녀가 겪은 성적인 체험 때문이었다.

위안부 누드가 비난받는 이유

그러므로 위안부 누드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정반대로 위안부 누드는 강간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인 기억마저 소모하고 있기에 더욱 위악하고 또한 폭력적이다. 위안부 누드가 나치 캠프와 다른 점은 여기에 있다. 나치 캠프는 바로 삭제될 수 없는 역사적 기억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 그것은 성과 무관한 역사적 사실들이 바로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무대였음을 반복하여 일깨워준다. 반면 위안부 누드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그것은 역사적 기억을 강간 환상의 무대 안에서 소비한다. 그 자리에서 강간당한 여성은 존재하지 않고 스스로 은밀히 즐기고 있었음에 분명한 성적인 파트너, 마조히스틱한 여성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때의 위안부 여성은 제국주의적 전쟁에 징발당한 채 성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했던 여성이 아니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빠져나와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집행하는 '나'의 상상적인 여성일 뿐이다. 이는 강간이나 성희롱을 자행한 남성들에게서 흔히 듣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다. 그는 그녀가 그것이 싫었다면 왜 감히 저항하고 부정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놓인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 채 오직 욕망의 대면만으로 그 상황

을 각색한다. 성폭력과 강간을 저지른 남성들의 집요한 환상은 언제나 그녀도 분명히 즐겼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 누드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그리고 위안부 누드의 비참함은 바로 이런 성적 환상을 위해 전시 강간이라는 비극적 진실을 망각한다는 데 있다. 위안부 누드는 위안부 여성의 체험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고 있다. 어떻게 감히 “어머니 조국”을 능욕하느냐고 위안부 누드를 비난할 때 그 주장은 식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식민의 역사 안에 놓인 위안부 여성의 체험에 숨어있는 성을 떼어내고 아울러 자신의 몰역사적인 강간 환상을 유지하려는 몸짓에 가깝다. 위안부 누드는 식민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 환상을 이용한 싸구려 포르노일 뿐이다. 그것은 식민적 역사와 전시의 강간을 자신의 환상의 무대안의 간단한 장치로 소비하려 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안부 누드의 평범하고 순진한 의도가 격렬한 거부로 좌절된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강간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견지되어야만 하는 ‘망각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성적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상대의 욕망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욕망의 무대가 되는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현실을 가능한 모든 척해야 한다. 그래야 그 환상은 달콤하고 뜨거워진다. 그러나 위안부 누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결코 그것을 무덤까지 비밀로 지킨 채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강간당한 여성의 분노와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안부 누드가 실패한 것도 이 점에 있을 것이다.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고 증언하는 여성 앞에서 남성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위안부 여성은 결코 자신의 체험을 역사화하지 못했다. 역사를 기억하는 주체가 민족인 한 그것이 기억하는 여성은 어머니나 누이 뿐이다. 민족 - 역사의 환상과 강간 환상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물론 그것이 역사를 기억하는 온당한 방식일 수 없고 또한 위안부 여성을 기억하는 올바른 방식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위안부 누드를 비난하는 것은 그것을 은밀히 즐기는 자들의 하울 좋은 농담일 뿐이다. 🙄